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사업과 한의약 거점구축지원사업 지원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사업팀 윤지환·정은영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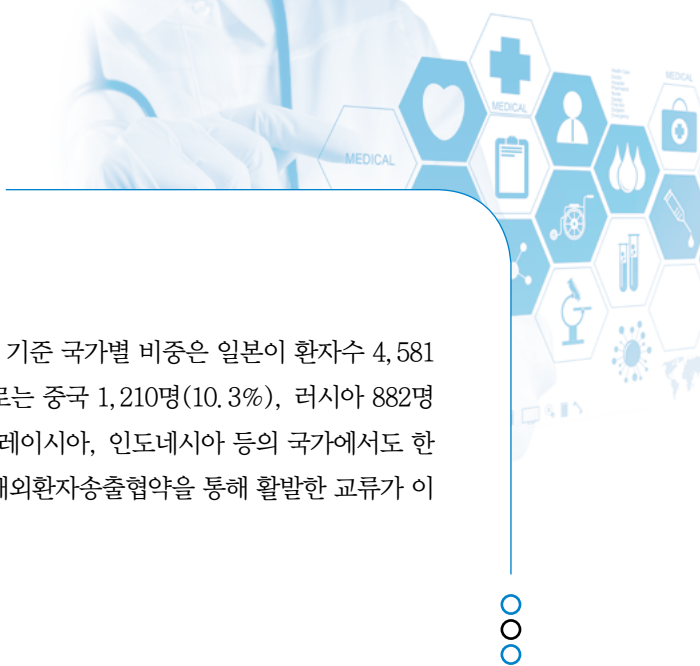
해외환자유치사업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써 2009년 이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한의약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2014년부터 본 사업을 맡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하였다. 2014년은 외국인환자유치 100만명 달성의 해이기도 하며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는 처음으로 9,000명을 넘어 10,000명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한의약 해외환자 진료수익은 47억 수준으로 연평균 1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실환자수 및 진료수익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한방 실적	실환자수(명)	4,191	9,793	9,464	9,554	11,743	22.9	44.0%
	진료수익(억원)	16	39	47	56	47	168	15.9%

〈표 2〉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국적별 현황

순위	국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가율
						환자수	비중	
1	일본	2,639	6,940	5,865	4,429	4,586	39.1	3.5
2	중국	242	277	617	800	1,210	10.3	51.3
3	러시아	167	412	558	778	882	7.5	13.4
4	미국	362	567	455	640	608	5.2	△5.0
5	카자흐스탄	8	17	63	78	359	3.1	360.3
6	말레이시아	3	3	13	75	196	1.7	161.3
7	인도네시아	9	13	19	39	135	1.1	246.2
그 외 국적		646	1,430	1,791	2,631	3,767	32.1	43.2



한의학 해외환자유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2>과 같다. 2014년 기준 국가별 비중은 일본이 환자수 4,581명(39.1%)으로 한의학 해외환자유치 국가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중국 1,210명(10.3%), 러시아 882명(7.5%), 미국 608명(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한방치료를 받기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해외환자송출협약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년대비 360.3% 증가율을 보였다.

## 한의학 해외환자유치 환경 변화(장애요인, 위협요인)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유치국가와의 관계, 환율,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한·러 무비자협정 발효(2014. 1. 무비자60일), 카자흐스탄 환자송출협약을 통해 해외 환자 방문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환자유치 전략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MOU 체결 등은 한국 의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의학 해외환자유치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우경화) 및 엔화공급 증가(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현상 지속으로 일본 환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루블화 저하로 러시아 환자 유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유치 참여 한방의료기관 중 실제 실적(자료요청)을 내는 곳이 적은 것도 장애요인이다.

## 한의학 해외환자유치 지원 방향

한의학 해외환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의학 해외환자유치역량 강화, 한의학 해외마케팅·홍보 강화를 중점 추진목표로 삼아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 한의학 해외환자유치역량 강화

한방 병·의원들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적인 상품 개발 및 패키지 구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에이전시 혹은 지인, 개별적인 검색을 통해 사전에 의료기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때 대표 상품은 각 의료기관의 얼굴이자 대표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의학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 프로그램 집중 육성을 통한 한의학 해외환자유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4년 한의학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전년대비 평균 308% 증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 가능성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수익 창출형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표 3〉 2014년도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현황

기관명	특화프로그램	증가율
이문원한의원	탈모치료 프로그램	501.4%
태오름한의원	전통문화체험 연계	57.1%
아스클레인터메드	한방+한류+웰니스	331.0%
창덕궁한의원	한방 미용 연계	187.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템플스테이 연계	14.7%
경희보궁한의원	볼임, 난임 등 여성질환	104.0%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검진과 미병치료	960.0%

또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등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여 해외환자유치를 시작함에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법률 등 해외환자유치사업의 전반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각 분야별 컨설턴트 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별 컨설팅 신청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컨설팅을 운영하여 해외환자유치기관별 사업기반구축 및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한의약 정책포럼 및 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재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장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의약 해외 마케팅 ·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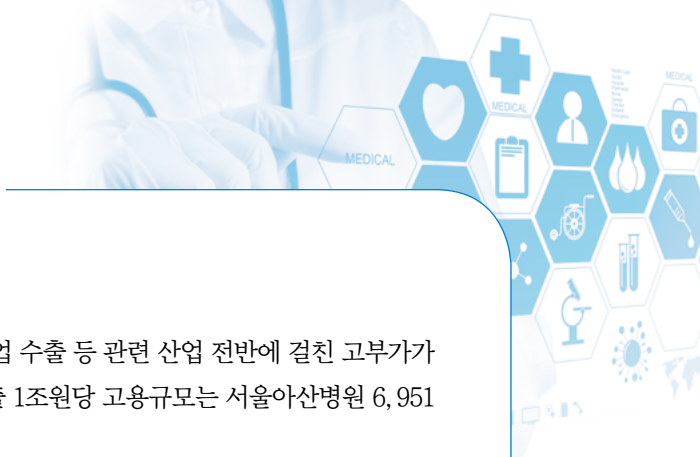
한국의료의 국가 위상 제고를 통한 해외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환자 초청 무료 시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해외 저소득층 환자 초청 확대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해외에 한의약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한의약 의료기술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2014년 시작된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지원 사업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4명(카자흐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 몽골 2명)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환자 선정기준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거점구축 타겟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등) 대상이며 현재 하반기 참가 의료기관을 모집하여 지속적인 나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한의약 해외의료인력연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환자유치 타겟국가 전통의학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 한의약의 선진 의료지식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우수 한의약 의료기술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지원사업 현황과 지원 방향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지원사업은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하여 한의약 세계화 벨트 조성 기여 및 ‘Medical Korea’ 해외환자 유치 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지원사업의 큰 범주인 의료시스템수출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관련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견인하여 지속적인 국부창출 및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 2009년 이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유발하는 복합산업으로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이다.



국가 간 국가간 의료서비스 교역확대에 따른 환자유치, 의료 연관 산업 수출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2009년 기준 양방을 기준으로 매출 1조원당 고용규모는 서울아산병원 6,951명, 삼성전자 948명으로 대략 8배이상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15년부터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맡아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지원사업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하였으며 그 기반을 발판 삼아 2020년 해외진출 한의약 의료기관을 2014년 기준 23개에서 2020년 50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 2014년 국가별 진료과목 진출 현황

국가별	피부성형	한방	치과	종합	자선진료소	건강검진	난임	하지정맥류	신경외과	신경정형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중기세포치료	혈액내과	연락사무소	합계
중국	29	1	1	1		2		2						1	1				7	45
미국		19	10	1			2					1							2	35
몽골	1		1	2	1	1												1	5	12
동남아	7				3				1		1		1			1			5	18
UAE				1					1							1			2	5
카자		1			1	1				1										4
기타	2	2	1														1			6
합계	39	23	13	5	5	4	2	2	2	1	1	1	1	1	1	1	1	1	21	125

한의약의료기관 해외진출은 피부·성형에 뒤이어 압도적으로 많은 진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한의약 의료기관의 진출이 두드러져 있다. 오바마케어 이후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국시장은 더욱 더 활기를 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유라시아의학센터 운영을 통한 한·러 보건의료 협력 확대, 한-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제 2차 동방정책에서 전통의학 교류 확대를 통한 한의사 인정 방안 모색, 한·뉴 FTA 시대를 맞이하여 한의사 진출 기반 조성 등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한의사 진출을 비롯하여 미국 동의보감의 날 행사 개최, 연해주·CIS 지역 한방사절단 파견, 한의학 나눔의료 환자 발굴 지원 등 한의약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 사업은 홍보 수단의 부족, 고부가가치 상품 발굴의 한계 등으로 질적 성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환자유치인 인바운드와 해외진출인 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진흥원에서는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 진출 및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수 증가를 위해 다각적인 측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기점으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모스크바를 넘어 뉴욕, LA를 거쳐 한국으로 다시 오는 한의약 세계화벨트 조성을 통한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의 완성, 특화프로그램, 한의약 의료관광 홍보존 운영을 통한 해외환자유치 수 증대를 통하여 한의약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